@안녕하세요.

오늘 불쏘시개 강연을 보러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 진행을 맡은, 부산 경남 대학생 강연기획단체 불쏘시개의 박현근이라고합니다. 미래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차 주말인데도 강연을 들으러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보니 정말 덥네요. 더운날씨에, 주말에 강연을 들으러 오신만큼 최고의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일정은 가지고 계시는 리플렛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입장하실 때 받은 포스트잇은 본강연이 끝난 후 인터미션 때 연사님께 하고 싶은 질문을 써서 여기 보이는 칠판에 붙여주시면 나중에 Q&A답변 시간에 몇가지를 선정해서 연사님이 직접 답변해주실거구요. 나눠드린 설문지는 작성하셔서 나중에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더 좋은 강연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씩 받으셨을텐데, 가치후불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치후불제는 저희는 강연료를 따로 받지 않고 가치후불제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하실때 봉투 하나씩 받으셨죠? 강연을 다 듣고 여러분이 느겼던 가치와 감동을 자유롭게 기부해주시면 됩니다! 봉투는 강연이 끝난 후 나가실때 상자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불쏘시개가 주최한 강연인데 저희 불쏘시개에 대한 소개를 뺴놓을 수는 없겠죠? 저희 불쏘시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면, 5년 전 강연을 좋아하고, 기획하고 싶은 여러 청춘들이 모여 부산에는 왜 강연을 기획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없을까? 없다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신념으로 만들어진 대학생 강연기획 단체입니다. 또 불쏘시개는 청춘이 청춘을 위한 강연을 직접 기획함으로써,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를 전달하려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그동안 불쏘시개는 총 20번의 강연과, 1300명 이상의 누적 청중, 97%의 강연만족도를 달성하고 있으며, 현재 6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연 분야는 인문학, 창업, 도전, 여행 등 매우 다양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님 아시죠? 안돼. 안바꿔줘. 돌아가라고 하셨던^^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범죄 프로파일러 오윤성 교수님과 <전문가가 말하는 범죄심리>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불쏘시개 멤버들은 “그걸 왜 너희들이 해?”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무도 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열정 하나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열정에는 불태울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료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게도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업체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의가 있는 곳 ‘이벤터스’, 모임문화 플랫폼 ‘온오프믹스’가 함께합니다.

자 소개는 여기까지하고 강연 전 간단한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연의 집중도를 위해 화장실은 쉬는시간에 가주시길 부탁드리구요 휴대폰 무음,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 최대한 조용히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17회 정기강연의 주제는 창업, ‘모두싸인과 함께 모두를 START UP하라’ 입니다. 저희는 전국 각지에 계신 연사 분들을 직접 만나 뵙는데요. 그러한 과정 끝에 섭외에 정말 흔쾌히 응해 주신 분이 바로 모두싸인 이영준 대표님입니다.

이영준 대표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고, 변호사 검색 서비스 인투로, 계약서 제공 서비스 오키도키,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 개발, 현 모두싸인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영준 대표님을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 강연 후)

본 강연, 잘 들으셨나요? 지금부터 약 15분간 쉬는시간을 가질겁니다. 15분 후인 ~시까지 자리에착석해주시길 바랍니다. 쉬는시간 이후에는 Q&A시간을 가질겁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는 질문은 포스트잇을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칠판에 마음껏 붙여 주세요!

Q&A시간, 연사+진행자 함께

Q&A후

자 이제 포스트잇 질문은 마무리 하고, 혹시 포스트잇 질문 때 자신의 답변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꼭 여쭤보고 싶다하시는 분 즉석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연사님과 기념촬영을 할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지는 사진촬영이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제출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 안 된 문항이 있다면 옆에 스탭분들께 물어봐주시구요. 끝으로 소담소담 신청자분들 사진촬영 후 아까 접수하셨던 접수테이블로 모여주세요. 오늘 강연 여기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앞으로 나와주세요~